

2004學年度

碩士學位 請求論文

개혁주의 교회론에 관한 연구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과 표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김기현

개혁주의 교회론에 관한 연구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과 표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한 성 기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年 12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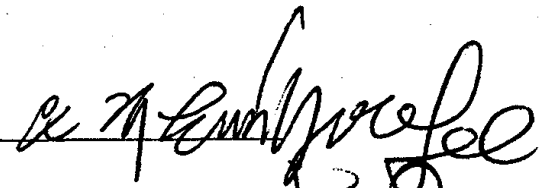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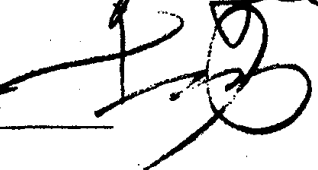
목회학과

김 기 현

이 논문을 김기현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04년 12월 9일

주심 이 

부심 리 영일 

위원 장 화 선 H. S. Chang

위원 

위원 _____

목차.

I. 서론	2
1. 문제제기	2
2. 연구목적과 방법	3
II. 교회론에 대한 역사적 이해	5
1. 교회론의 역사	5
1) 초대교회의 교회론	5
① 교부들의 교회론	5
② 어거스틴의 교회론	8
2) 중세시대의 교회론	10
3) 루터의 교회론	12
4)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15
III.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	18
1) 구원받은 총수로서의 불가시적 교회	18
2) 어머니로서의 교회	21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23
IV.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의 표지에 대한 이해	25
1) 말씀	27
2) 성례	29
① 세례	31
② 성찬	34
V. 결론	38
참고문헌	42

I. 서론

1.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을 말할 때는 “칼빈주의”를 의미한다. 이때 칼빈주의라는 의미는 칼빈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학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칼빈의 신학적 입장이 성경의 계시진리를 역사적 기독교회가 고백해온 체계적 진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칼빈주의이다¹⁾. 이와 같은 입장은 개혁주의는 단순히 어느 한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개혁주의는 사도적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개혁신학의 정통성은 성경적 입장에서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입장이다. 개혁주의의 교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는 참으로 성경적이기를 추구하는 신학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는 “오직성경”의 원리와 “전체성경”의 원리를 특성으로 한다. 둘째, 개혁주의는 공교회의 신조중심의 신학이다. 셋째,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사상을 표방한다²⁾. 넷째, 개혁주의는 신율적 복음주의를 표방한다³⁾. 신율적 복음주의란 신, 구약 성경이 통일적 계시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도덕율법임을 믿는 것이다. 다섯째, 개혁신학은 그 정치형태로서 장로주의체제를 성경적 교회의 고유한 정치체제임을 믿는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칼빈이 개혁신학에 준 지대한 영향이다. 흔히 개혁신학을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것만 보아도 칼빈의 영향력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혁신학이 한 개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것처럼 칼빈의 신학도 교부들과 같이 전대의 남겨놓은 신학적 유산이 없었다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칼빈의 신학은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칼빈의 당시대에도 신학적 논쟁이 있었고, 교회론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었다. 현대 시대에 와서는 교파가 다양해졌고, 교회론이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물론 교회론이 본질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관이 너무 실용적인 차원에 치중하다보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안 머레이는 교회론과 관련하여서 “많은 목회적인 혼란과 신학의 세속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미를 혼돈한데서 왔다”고 하였다⁴⁾. 따라서 종교개혁자이며 개혁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칼빈의 교회론을

1) 강경원 편, 『헌법』, (안양: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3), p. 12.

2)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할 때 그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으로서의 신적 작정이 그 핵심이다.

3) 강경원, op. cit., p. 12.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칼빈의 교회론을 검토함으로써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연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칼빈의 전 신학적 체계가 그렇지만 칼빈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교회의 본질을 예정론과 연결시킨다.⁵⁾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비록 칼빈은 자신의 교회론을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시켰지만, 그의 교회론은 결코 관념에 머무르지 않는다. 칼빈은 그의 교회론을 전개할 때 현실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현실에서 과연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인가 할 때 교회의 표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칼빈은 교회가 지상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 교회의 겉모습이나 외관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의 표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보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곳과 성례가 집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하였다⁶⁾. 이안 머레이도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하였다.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이냐를 진지하게 탐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또 우리의 강단에서 복음이 참으로 선포되는지의 문제도 직면해 볼 수 있게 됩니다”⁷⁾. 이와 같이 칼빈의 교회론은 균형이 잡혀있는 교회론이다. 이것이 칼빈의 교회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과 방법

현대의 교회론은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신복음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은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성경적 교리들을 포기하였다. 이들은 교회론적 면에서 사회학을 도입하여서 교회를 영적기관 보다는 사회적 인간들이 모이는 사회적 기관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4) 이안 머레이, “복음이 교회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와 신학』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0년 4월호), p. 33.

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36)』, 양낙홍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139.

6) Inst(1536), p. 60.

7) 이안 머레이, op. cit., p. 33.

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해서 교회성장, 목회방법들을 만들어가고 있다⁸⁾. 이와 같은 현상들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현상들이다. 따라서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개혁신학이 성경적으로 제시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살펴보아서, 교회가 추구해야 하고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되는 교회론적인 면에 반대해서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칼빈이 제시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진정한 교회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칼빈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일생을 걸쳐서 개정하는 작업을 한 기독교 강요는 칼빈 자신의 전 신학적 체계가 함축되어 있다. 그 만큼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 자신의 저술활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⁹⁾. 따라서 칼빈의 교회론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강요에 한정하고자 한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의 교회론을 연구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론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교회에 대한 이해, 어거스틴의 교회에 대한 이해, 루터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교회론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 칼빈의 교회론은 역사적 맥락과 이어져 있음을 살피게 되면서도 칼빈의 교회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교회론을 연구하기 이전에 기독교 강요의 성격과 배경을 알아볼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배경과 성격을 통하여서 기독교 강요에는 실천적이며 저항적인 성격이 있음을 알아볼 것이며, 또한 이 안에서 칼빈의 교회론이 갖고 있는 실천적이며 저항적인 성격이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칼빈의 신학자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로서의 모습 또한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의 교회론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즉 칼빈의 교회론의 본질을 연구하고, 이 본질과 연관되는 불가시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연구하고,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교회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회의 표지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표지를 연구

8) 김홍만, 『개혁신앙으로 돌아가라』, (서울: 도서출판 옛적길, 2004), p. 148.

9) 프랑시스 웬델, 『칼빈의 신학서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p.121.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교회론에 대한 역사적 이해

교회론에 대한 이해는 초대 교회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천이 있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하여 부르신 무리들로 이해했지만 2세기 후반 이후 이단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2, 3세기의 고대교회는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부들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없다고 하였다. 그레고리 1세 이후의 중세 교회는 더욱 긴밀히 결속되어서 조직된 교직체계로 발전되었고, 중세 시대의 교황권은 세속 정부와 영합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세 교회는 더 나아가서 세속 정부의 왕권 위에 군림하는 “영광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구체화 시켜 나갔다. 그러나 문예부흥으로 인한 인문주의가 대두가 되었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권의 권위를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유일한 신앙의 원천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중세시대의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성직계급제도를 부인하였고, 루터는 교회의 본질을 교황이 우두머리로 있는 교회의 외면적 조직에서 찾지 않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찾았다.

1. 교회론의 역사

1) 초대교회의 교회론

① 교부들의 교회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출발하는 것임을 선포하였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사건이 있는 후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신자들은 모여서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사도의 설교를 들었으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다. 또한 그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복음전도와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¹⁰⁾ 이와 같이 예수를 자신들의 주로 고백한 신자들의 모임은 처음부터 영적 단체 혹은 교회란 이름으로 호칭되었다. 즉 초대교회에서 기독교회는 옛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신자들의 모임이었다¹¹⁾. 속 사도들

10)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pp. 47~48.

과 변증가들 역시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의 무리로서 이해하였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교회를 가르쳐서 성도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양떼, 하나님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몸과 영의 관계가 같다고 하였고, 교회는 본질상 하나이며 거룩한 것이라고 하였다¹²⁾.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앙공동체로서의 영적인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즉 성경에 따른 그리스도 교회의 영적인 통일성은 초대교회시대에도 계속 그 배후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들이요 택자들이며 그들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은혜의 영, 한 소망을 갖는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돌을 형성하고 부정하며 검고 부적당한 돌들은 그로부터 제외되는 돌탑이요 불신앙들은 그로부터 분리되는 의인들의 가족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의 개념이 2세기 후반이 되면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회는 박해가 끝난 후 배교자들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회의 혼란을 틈타서 이단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다. 2세기 중엽에는 몬타누스파¹³⁾가 3세기 중엽에는 노바티아누스파가¹⁴⁾, 4세기 초엽에는 도나투스파¹⁵⁾ 등의 이단들이 등장하였다. 몬타누스 주의자들은 교회는 그 자체가 원리적으로 영이라 주장

11) Herman Bavink,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p. 502.

12) 김영재, op. cit., 86.

13) 2세기 중엽 프라지아 몬타누스에 의해 일어난 종말론적 운동으로서 영적 은사 강조하였고, 임박한 재림의 강조로 폐푸자와 티미움에 의해 새 예루살렘 건설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2세기 전후 아시아 여러 종교회의에서 정죄되었다.

14) 로마의 장로 노바티아누스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자기들을 순수파라하여 데기우스황제 때 배교자들을 정죄하였을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들과, 세례 후에 죄를 범한 자들도 교회 밖의 사람들로 보고 교제까지 거절했던 엄격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251년 로마 종교회에서 거절되었다.

15) 이들도 노바티아누스파처럼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분파이다. 황제 디오클레시안 박해 시 교회가 파괴되고 성경이 압수당했을 때 성경을 태우도록 건네다 준 사람들 중 한 사람인 펠릭스에게 안수받은 카르타고 감독 케실리안을 거부했던 아프리카 분파 교회 분파를 말한다. 이 명칭은 누미디아 감독들이 케실리안 대신 메이저리누스를 세웠는데 그 후계자가 도나투스였는데, 여기서 소위 도나투스당이라하게 된 것이다. 316년 핍박을 당했으나, 줄리안 황제 때 완화되었다. 처음에는 성 오탁타누스에 의해서 공격받았고, 후에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공격당했다.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직책과 권위를 부정하면서 영감과 예언에 기초하여 교회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노바티아누스주의자들과 도나투스주의자들은 교회의 카톨릭성을 희생하고 교회의 거룩성에 열렬하였다. 이와 같은 이단분파들의 주장에 반대하여서 교회 안에서는 참된 보편교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할 필요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교회의 외적인 표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교회는 이단을 척결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지역 교회의 목사나 감독들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었다¹⁶⁾. 이와 같이 이단분파들에 반대하여 교부들은 점점 더 종교적인 교회제도에 강조를 두어서, 교회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계승자인 동시에 참된 전통의 소유자인 감독의 통제를 받는 외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카톨릭성을 가시적으로 파악하였고, 교회의 통일성을 감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감독직의 사도적 전승을 주장하게 되었다.

원래 카톨릭성은 우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포함하는 세상 끝날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몸의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회의 카톨릭성은 온 땅과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며, 그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이단들의 발흥에 의해 교회는 점차로 카톨릭성을 영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사도들에게서 기원한 전통을 소유한 감독이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주교직을 가진 카톨릭 교회가 먼저 선행하며 지교회들은 그 전체의 지체들로 파악되었다. 즉 지교회들은 하나의 보편 교회의 부분들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디나 그 곳에 신도들이 있게 할 것이니 이것은 마치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보편적 교회가 있음과 같다”라고 했으며, 키프리안은 “감독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는 감독안에 있다. 누구든지 감독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¹⁷⁾라고 말하였다. 교회의 통일성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교역’에서 찾았다. 즉 교부들은 목회를 하는 감독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교역자를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것이었다. 초대교회는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교

16) 오덕교, 『장로교회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p. 33.

17) Ibid., p. 34.

권의 우위성을 주장하였고, 이것은 감독직의 사도적 전승까지 주장하게 되었다. 즉 사도들은 감독들이었으므로 감독인 사도들이 자신들의 후계자로서 감독들을 임명하고, 또 그 감독이 후계자를 임명해서 이 감독의 사도적 전승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감독 중심의 교리를 완전히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은 키프리안이었다. 그는 감독들을 사도들의 참된 후계자들로 간주하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희생적인 사역 덕택으로 제사장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감독들은 감독단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단을 구성했고,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모체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교회의 통일성은 감독들의 통일성에 기초하게 되었다. 따라서 감독에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구원을 박탈당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¹⁸⁾.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은 하나님의 대행자이며 감독의 교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일치하며, 장로들은 사도들의 직무의 대행자이며, 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봉사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였고, 예수께서 성부 없이 한 일이 없듯이 교인들은 감독이나 장로 없이는 그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초대교회는 점점 감독적인 교회제도에 강조를 두게 되면서 감독들에 의해서 인도된 교회가 진리의 유일한 보존자이며, 선포자이며, 구원의 피할수 없는 제도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와 분배자, 구원의 중보자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가 되었다.

② 어거스틴의 교회론

어거스틴은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았다¹⁹⁾.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온 교회와 모든 신도들과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모든 신자들과 하나의 단위, 하나의 전체, 하나의 몸이 되신 것으로 보았다. 어거스틴은 사도바울의 말인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찌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는 말씀을 자신의 저서들 가운데서 35번이나 인용했는데, 그 중에서 34번을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의 예표로서 해석하고 있다. 이렇

18) Louis Berkhof, 『조직신학 下』, 권수경·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p. 815.

19) Eric. G. Jay, 『교회론의역사』,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p. 103.

듯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의 신비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을 통하여서 그의 교회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밝혀졌다. 도나투스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교회를 성도들의 회중으로 보면서 교회는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교회의 성결은 교회의 구성원들의 성결에 근거한다고 생각하였다²⁰). 따라서 이들은 교회는 무죄한 성도들로 구성되며, 의식의 효과도 무죄한 성직자가 베푸는 곳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급진적인 내용들을 강조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켰다. 이에 반대하여서 어거스틴은 가시적 교회의 개념을 알곡과 가라지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즉 교회는 고유하게 성령의 보증을 받은 구원의 기관이지만 그 가시적 교회 내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 사랑의 띠에 묶여 있는 불가시적 교회와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의 띠에서 단절되어 있는 자들의 구별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예정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예정된 자들의 공동체로 보았으나 이 예정된 자들의 공동체인 불가시적 교회가 하나의 제도적인 교회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권위를 가진다고 어거스틴은 말하였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교회는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며, 교회에 속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구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교부 키프리아누스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²¹⁾” 말을 수시로 표현했다. 이것은 가시적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는 보통 지상적인 제도 혹은 혼합된 몸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지상적인 교회 안에는 여전히 알곡과 쪽정이가 섞여 있는 것이다²²⁾.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모은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거듭난 지체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도성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말하는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로마의 역사적 교회를 동일시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의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새 지체들을 생산하며 양육하는 기능이다. 이런 의미에서

20) 김영재, *op. cit.*, p. 160.

21) *Ibid.*, p. 176.

22) Justo L. Gonzalez, 『기독교사상사Ⅱ』, 이형기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p. 70.

어거스틴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비유한다. 즉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개념은 낳고 양육하며 돌보고, 말을 안 듣는 아들 뿐 아니라 모범적인 아들에 대해서도 빈민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키프리안적인 교회관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받아들여서 보편교회는 사도적 권위가 감독에 의해서 계승된다고 보았다. 교회는 거룩한 은총의 보고로서 교회는 이 거룩한 은총을 성례를 통하여 나누어준다고 보았다²³⁾.

2) 중세시대의 교회론

중세시대의 교회론은 더욱 더 빈틈없이 짜여지고 조직화된 절대적인 교직제도로 발전되었다. 어거스틴의 보다 근본적인 교회관 이었던 성도의 무리로서의 교회관은 일반적으로 무시되었고 감독중심의 교회체제는 사제주의 신학과 결합되었다²⁴⁾. 트렌트 요리문답서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오늘날 이 땅 위에서 무형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로마교구를 다스리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한 분 유형의 원수를 모시고 살아나가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단체”라고 하였다²⁵⁾. 이와 같이 중세시대의 교회는 감독중심사상의 교황중심의 교회론이었다. 따라서 중세시대는 교회의 신적설립과 베드로의 수위성, 교황의 베드로계승사상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예를 들면서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세상 권세가 감히 교회를 해할 수 없을 것을 교훈 하셨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신성한 교회라고 주장한다. 즉 로마 카톨릭은 로마교회야 말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라는 입장에서 교회의 신적 설립을 강조한다. 교회의 신적 설립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에 의해 설립된 기구와 완전한 통일체로서의 제도적 교회를 강조하게 된다.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예수께서 베드로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모든 사도들보다 위에 세우셨고, 이 베드로가 바로 로마 교회를 세웠

23) Louis Berkhof, op. cit., p. 815.

24) 오덕교, op. cit., 34.

25) 유선호, 『천주교도기독교인가?』 (서울: 승문출판사, 1984), p. 63.

고, 감독들이 베드로를 계승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세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고 불려졌고, 하늘과 땅에서 풀고 맬 권세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에게 숨겨진 것이 있는가?”라는 터툴리안의 말 등을 예를 들면서 초대교부들은 로마의 감독들을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²⁶⁾. 따라서 교회는 가시적 머리인 교황아래서 교황의 대리자들인 주교에 의해 통치를 받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때 이 신실한 자들은 동일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동일한 성례전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교황13세는 “교회의 긍정적인 목적과 효과 있는 신성의 직접적인 원인들을 상상할 때 교회는 실제로 영적이다. 하지만 교회의 일원들과 영적 은사들로 인도하는 수단들을 고려할 때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는 필수적으로 가시적이다”라고 선언하였다²⁷⁾. 즉 로마 교회는 불가시적인 몸일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가시적 조직체인데, 그 본부는 로마에 있다.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중심의 성직계급구조는 사제직과 평신도직이라는 이중구조를 갖게되고, 평신도는 사제직에 의해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로마 교회는 하나의 구원기관이다. 즉 하나님의 신적 구원은 교회의 중재를 통하여 전달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에서 제도화한 성례는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신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직자들을 통해서 거행되는 7성례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제공받게 된다²⁸⁾. 이와 같이 성례적 사제기능은 로마 카톨릭 사제들에게 주어진다. 이와 같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적 구조는 교황으로부터 직접 감독들에게 주어진다. 감독들은 교구안의 모든 사제들을 지배한다. 이런 사제권은 모든 성례를 집행하며 빵과 잔을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보혈로 변형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죄들을 용서하고 존속하도록 한다. 따라서 중세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속되는 하나의 교회로서 이 곳에서 이탈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법규와 뜻으로부터 떠나게 되며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파멸하게 되는 것이다²⁹⁾.

26) 오덕교, op. cit., p. 35.

27) Norman L. Geisler & Ralph E. Mackenzie, 『로마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라온성역,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3), pp. 392~393.

28) Ibid., p. 352.

29) Ibid., p. 414.

3) 루터의 교회론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회의 무오성이나, 그릇된 성직계급제도와 성례를 통해 구원이 분배된다는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중세 교회의 입장을 루터는 반대하였다. 먼저 루터는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모임에서 찾았다. 특히 루터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로 번역되는 *communio sanctorum*을 “거룩한 공교회”와 동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루터가 *communio sanctorum*을 교회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본 것을 의미한다³⁰⁾.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독일어에서 비텐베르크 그룹 또는 회중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크리스찬 단체 또는 성회 또는 독일어로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³¹⁾” “신조는 거룩한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루터는 대교리문답서에서 *communio*라는 말을 교제라는 번역보다도 공동체로 번역해서 성도의 공동체로 말해야 할 것을 말한다. 이 거룩한 공회는 온 세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단 하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이다³²⁾.

이와 같이 루터가 교회론의 본질에서 본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뜻이 담긴 성도의 공동성과 공유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루터는 첫째로 성도의 공동체를 하늘에서 지상으로 끌어내렸다³³⁾. 일찍이 루터는 1513년 자신의 첫 시편 강의 이전에 신약성서의 성도들은 공동체의 지체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이라는 것이다. 성도들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발견됨을 알았다. 따라서 루터는 로마 교회처럼 성도들과 보통 그리스도인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성도를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서 그리

30) 파울 알트하우스, 『루터의 신학』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p. 325.

31) M. Luther, 『루터선집10』 지원용 편, (서울: 컨콜디아사, 1987), p. 505.

32) M. Luther, 『루터선집9』 지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3), pp. 487~488.

33) 파울 알트하우스, *op. cit.*, 329.

스도의 미천한 형제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나눔은 지상에서 살아있는 신자들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들의 삶이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고난 받으며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다³⁴⁾. 둘째로 중세 시대는 모든 사람이 우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도덕주의에 의해 지배되었으므로 진정한 교제를 생각할 수가 없다. 도덕주의는 본질상 이기주의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덕주의는 탁월한 금욕적 성취를 이루려는 종교적 계급을 창출하며, 그리스도의 몸안의 지체로서의 모든 성도들의 평등성이 깨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의 의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복음은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세계의 토대를 완전히 파괴해버린다. 루터는 오직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주어지는 신앙을 통한 칭의의 복음만이 진정한 교제를 창조한다는 것을 알았다. 복음에 의한 신앙만이 인간의 구원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두며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자유롭게 하여서, 자신의 형제들을 섬기게 한다³⁵⁾. 이와 같이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루터의 교회관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신자들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제사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자들은 서로 서로와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루터에 의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고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어머니이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그의 교회 안에서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에 말씀이 설교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루터는 교황제도 아래서는 성령이 없었다라고 말한다. 즉 루터는 “그리스도가 설교되지 않는 곳에는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기독교회를 모으시는 성령도 없습니다. 또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도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가 없습니다.”³⁶⁾라고 하였다. 교회의 표지는 로마 교회 같은 제도적 기구에 있지 않고 말씀과 성례전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선포하는 데 있다. 따라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를 통하여 그는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34) Ibid., p. 331.

35) Ibid., pp. 334~335.

36) M. Luther, 『루터선집9』 op. cit., p. 487.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성례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신자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성화 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³⁷⁾.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교회가 없다. 교회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 교회가 말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하여 교회가 성립된다. 교회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한다³⁸⁾. 루터에 따르면 교회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며 복음을 말함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즉 교회는 “입집”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기본성격은 복음의 선포로 정의된다. 이것이 교회가 서야 할 바탕이다. “만일 우리가 의인의 교리를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만다. 그런즉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은 날마다 이 교리를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다.” 교회는 또한 믿음의 향목으로서 그것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의 보이는 표상이요 세례와 성만찬의 “보이는 말씀”이다. 따라서 교회의 일차적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교회는 성례전을 통하여 그 믿음이 확인되므로 성례전 역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³⁹⁾.

목사직은 성서에 기초한 교회에서 필요한 직이지만 루터는 목사직을 평신도보다 우월하다거나 구원의 보장이 더 확실하다는 영적 계급사상을 용납하지 않았다. 목사는 다만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또한 중세의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라는 용어는 어원상 희랍어인 연장자(presbyteros), 즉 장로라는 어원을 가진 데서 유래한 연령에 대한 암시였다. 따라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평신도와 성직자간의 계급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루터에게 있어서 만인제사장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었다. 만인제사장은 성직자와 평신도는 다 같이 성도이지만 다만 성직자는 교역의 시무를 맡았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었다⁴⁰⁾. 만인제사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3의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개입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누구도 남을 위하여 신앙을 소유할 수 없기

37) M. L.uther, 『루터선집10』 op. cit., p 507.

38) 김익원, 『사상속의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87), pp. 198~199.

39) 카터 린드버그, 『마틴루터』 이현주 역, (서울: 컨콜디아서, 1990), pp. 57~58.

40) 이장식, 『기독교사상사제Ⅱ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p. 219.

때문이며 나 자신의 신앙을 남에게 유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특별한 은총의 기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하나 하나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모여진 곳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로서 성도들은 직접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예배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만인제사장은 내가 내 이웃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각 개인이 스스로 제사장과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대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⁴¹⁾.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는 본질상 성도의 모임이지만 루터는 교회의 성격상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로 분류하였다. 루터에게 있어서 불가시적 교회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추어져있는 교회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불가시적 교회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지배이다. 따라서 루터는 불가시적 교회를 신령한 교회로 묘사하였다. 이 신령한 교회는 말씀의 교회로서 외부적으로 이렇다할 명백한 표시방법은 없지만 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거듭난 삶을 가져다준다. 이와 같이 불가시적 교회는 개인의 주관적인 면뿐만 아니라 거룩한 말씀으로 인한 활동으로 구원의 성취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가져다준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사탄의 나라와 싸워 이겨야 되는 역사적 실체요 단체이다. 따라서 루터는 불가시적 교회 외에 외부적인 제도적 가시적 교회가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루터는 교회의 참된 통일성은 어떤 제도나 성례 같은 외부적인 것에 두지 않고 복음의 교리에 두어서 불가시적교회에 통일성을 두었다. 그리고 가시적 교회의 표지는 외부적 제도와 성례전으로 표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교회는 분리되지 않고 이 관계성은 마치 영혼과 몸의 관계와 같다고 하였다⁴²⁾.

4).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처음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의도는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어떤 견본을 제공하는데 있었다. 특히 칼빈은 프랑스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말한다. 칼빈은 그의 헌사에서 이 같은 배경과 목적을 쓰고 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왕이시여, 제가 처음 이

41) 김익원, op. cit., pp. 201~202.

42) Ibid., pp. 202~203.

저술에 손을 댔을 때 폐하에게 바쳐질 것을 꿈을 꾸지도 않던 일이었습니다. 나의 목적은 단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함으로써 그것에 의해 종교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에 착수하였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그리스도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⁴³⁾” 따라서 칼빈은 이 책이 단순하고 초보적인 가르침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즉 칼빈은 기독교 교리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해설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1535년 피로 물든 박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벽보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원인은 카톨릭 성례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1534년 10월 24일 곳곳에 붙였는데, 그만 왕의 출입 문에도 붙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왕은 진노하여서 범인들을 모두 잡아 근절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Jean Morin의 지휘아래서 한 배도자가 가리키는 집마다 공포의 살육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다. 그러나 박해자들은 오직 ‘재침례자들과 선동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서 이와 같은 순교와 박해의 사건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였다. 칼빈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 책을 근거 없이 핍박당하고 순교 당하는 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쓰기로 결심하였다⁴⁴⁾. 이 점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헌사에서 쓰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악한 사람들의 격노가 당신의 영토에서 너무나 멀리 파급되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가 발붙일 장소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가르치기에 착수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동시에 폐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⁴⁵⁾. 즉 기독교 강요는 종합적으로 기초교리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변증서의 성격과 신앙 고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순수한 교리 때문에 억울하게 순교한 순교자들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변증하고, 대적자들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다. 그러나 비록 기독교 강요가 변증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지만 교리서로서의 성격의 중요성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칼빈은 그의 전 일생을 거쳐서 기독교 강요를 개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정리한 점에서 교리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 것이

43) Inst(1536), p. 45.

44) 프란시스 웬델, op. cit., p. 156.

45) Inst(1536), pp. 45~46.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강요 최종판에서 독자에게는 드리는 짧은 글에서 판이 거듭될 때마다 강요의 내용을 증보했는데 최종판의 순서로 배열이 되기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칼빈이 강요를 쓸 때의 원래 관심은 개혁신학의 교리에 대한 간결한 해설을 지식층에게 보급하는 것이었는데, 후에 칼빈은 그의 관심은 성서를 읽는데 대한 적절한 교리적 입문서로서 전환시켰다⁴⁶⁾. 즉 칼빈은 신학이론을 연구하는 학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강요를 쓴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성격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서를 참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려는 것에 있었다. “독자들은 이 책을 보다 유익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간략하게 그 활용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즉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지향해야 하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최종 목적을 그들에게 밝혀주고자 하는 것이다. 확실히 성서가 더 이상 첨가할 것이 없는 완전한 교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속에 우리 주님이 무한한 지혜의 보물을 계시하셨지만 그것을 잘 습득하지 못한 사람은 인도와 도움을 얻을 수 없으며, 만약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고 성서가 명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 찾게 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⁴⁷⁾ 기독교 강요의 각 권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다루었다. 그리고 나서 2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실 때, 구세주로 나타내시며, 율법을 따르는 족장들에 의해 먼저 인식되시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3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동참하는 방식과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열매 혹은 결과에 대한 깨달음’, 4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외면적인 수단 혹은 방법에 대한 깨달음이다’.

46) 프란시스 웬델, *op. cit.*, p. 157

47) *Ibid*, p. 158.

III.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

신약시대의 교회와 구약시대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였다. 신, 구약 교회를 본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시대의 교회는 모두 참된 신자들로 구성되어있다. 물론 이 것은 불가시적 교회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창조 이래로부터 현재 시대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땅위에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위에서 연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 오토베도 역시 교회의 지속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계속성을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그의 다함이 없는 신실하심 속에서 성령으로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믿었다.”⁴⁸⁾

1) 구원받은 총수로서의 불가시적 교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하여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교회의 정의에 관한 설명에서 교회의 정의를 예정과 연결하면서 택함을 받은 전체수인 교회를 믿는다고 하였다. “먼저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자의 전체수, 천사들이나 사람들, 사람들 중에는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또 어느 민족 속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이들이 한 교회요 사회이며 하나님의 한 백성인 것을 믿는 것이다.”⁴⁹⁾ 따라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구원받은 총수로서의 불가시적 교회의 개념은 예정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교회는 본질적인 면에서 선택받은 자들로만 이루어져있다. 즉 교회는 선택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지고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이다⁵⁰⁾.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예정하신 신자들의 단체이며 모임이다⁵¹⁾. 교회는 신자 밖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 신자는 문자 그대로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48)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44.

49) Inst(1536), 139. 재인용, 김영규, 『조직신학편람IV: 교회론,종말론』, op. cit., 10.

50) Inst(1559), IV. 1. 7.

51) Inst(1559), IV. 1. 2.

역사 하심에만 의존하여 전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⁵²⁾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살아 숨쉬는 신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보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현재 신자들이 알 수 없는 아직도 출생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⁵³⁾.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즉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격이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아신다. “이 교회는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현재 지상에서 살아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⁵⁴⁾ 따라서 신앙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배제한다. 비록 칼빈이 구원받지 못할 자에 관하여서도 말을 하지만 칼빈은 어떤 신자라도 남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신자들이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모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많은 쪽정이가 알곡과 함께 섞여있다. 따라서 누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느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선택함을 받았고 또는 버림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택함을 받은 자의 믿음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자는 심판자가 아니다. 만일 어떤 신자가 판단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입장을 떠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⁵⁵⁾. 오직 “주의 눈만이 주의 휘장을 달고 다니는 자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들과 구원의 종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자를 알아보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총수로서의 교회는 불가시적인 성격이 있다. 즉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총수로서의 불가시적인 교회인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인 면에서 모든 시대에 있어서 선택받아 구원

52) 프랑수와 방델,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p. 358.

53) 해롤드 나이트,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p. 230.

54) Inst(1559), IV. 1. 7.

55) 오토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p. 46.

받은 총수이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인 면에서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이 있다. 칼빈은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 교회가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 한 머리에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 같이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⁵⁶⁾ 교회의 보편성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땅에나 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⁵⁷⁾. 즉 기독교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세대들, 모든 신분들과 지위, 모든 장소와 때를 위해서 결정되어 있고 합당한 세계 종교이다. 교회의 통일성은 영적인 통일성이다. 영적 통일성이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같은 성령으로 교통하며, 신앙과 소망이 동일함을 말한다. 위의 영적 통일성을 믿는 교회라면 어느 나라의 교회든지, 어떤 교파의 교회든지 모두 같은 교회로서 하나의 보편교회에 속한다⁵⁸⁾. 칼빈은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주께서 주름잡힌 것을 펴며 티를 씻기 위해서 매일 수고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교회는 매일 전진하면서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즉 하루하루 전진하지만 아직은 거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⁵⁹⁾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것과 신자들의 생활의 순결함에 있다. 신자들이 거룩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안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기 때문이며, 신자들의 거룩은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⁶⁰⁾

56) Inst(1559). IV. 1. 2.

57)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p. 384.

58) Ibid, p. 383.

59) Inst(1559), IV. 1. 17.

60) 박윤선, op. cit., pp. 383~384.

2)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신자들이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외적인 도움의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수단을 정하시고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어머니인 교회의 도움을 통하여 성화를 시켜서 믿음의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가 어머니가 되신다⁶¹⁾. 칼빈은 가건적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어머니라는 칭호를 배워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며, 기르고, 보호 지도해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회 밖에서는 생명을 받을 길이 없다.⁶²⁾ 여기서 칼빈은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잉태하며 낳는 것과 먹여 기르고 보호 지도해 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무지하고 나태하며 진리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장시키시며 끝까지 발전시키신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일깨워주는 복음을 교회에 위임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앙을 불러일으키신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봉사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자신에게로 택자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와 같이 신자를 영적으로 창조하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다⁶³⁾.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는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⁶⁴⁾고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두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된다. 우리의 신앙 역시 출발과 동시에 사방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기르시고 보존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하기

61) Inst(1559), IV. 1. 2.

62) Inst(1559), IV. 1. 4.

63) 해롤드 나이트, *op. cit.*, pp. 221~224.

64) Inst(1559), IV. 4. 5.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성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교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⁶⁵). 이와 같이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한 도구이자, 신자를 기르는, 즉 성화 시키는 수단이다⁶⁶).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교회의 기능의 측면, 즉 교회의 제도적 방면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곧 이것은 신실한 자들을 기르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방편을 통하여 작업하는 형태로 있는 것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도구이며 부르신 백성을 양육하는, 즉 성화 시키는 도구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일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⁶⁷). 즉 교회란 육신의 어머니가 그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처럼 신자들을 낳고 양육한다. 따라서 교회는 신자들이 일생동안 다녀야 하는 학교이면서, 교회의 몸 밖에서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교회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다⁶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제정하셨으며, 성찬을 두셨고, 직분을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하늘교리를 전파하는 목자들을 두셨으며,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들을 두셨다⁶⁹). 즉 교회안에 사역자들을 두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개념은 가시적 교회로서 교회의 표지와 연결된다. 즉 설교와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수단들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성화 시키시는데 이때 은혜의 수단은 교회의 표지가 일치된다. 이와 같이 복음의 전파와 가르치는 사역의 제도는 신앙을 일깨우고, 교회 구성원들의 성화를 증진시키는데, 이것을 칼빈은 ‘믿음의 일치라고 불렀다. 즉 믿음과 외적인 질서 안에서 완전한 일치이다⁷⁰). 이제 이 점은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과 연결된다.

65) 해롤드 나이트, *op. cit.*, p. 225.

66) 프랑수와 방델, *op. cit.*, 356.

67) *Inst(1559)*, IV. 1. 1.

68) 오토 베버, *op. cit.*, p. 53.

69) *Inst(1559)*, IV. 1. 5.

70) 프랑수와 방델, *op. cit.*, p. 354.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교인들이 몸과 같이 단합된 공동체 자체를 말한다.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몸으로 비유된다.(고전12:12-17)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몸으로 비유되는 이유는 몸은 단합체일 뿐만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이다⁷¹⁾. 신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신자와 주 예수 사이에 있는 연합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있으며, 이 목적은 선택의 결정으로 나타났다⁷²⁾(엡1:4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성도들과 주님의 연합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점이다⁷³⁾. 이 점은 칼빈이 성도의 교제를 설명하는 항에서 역시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존립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같이 동요하거나 파멸될 수 없다. 둘째 교회는 영원 불변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체들이 찢기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신자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⁷⁴⁾ 따라서 이 연합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의 교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든 나눈다는 원칙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집되었다...신경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공동체를 주장하였으며...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든 신자들의 머리 시라는 것을 참으로 확신한다면 그들은 형제애로 연합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신자들은 그들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자 서로간에 연합되어 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권위의 원천으로서, 교회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며,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기관으로서 삼으셨다. 따라서 교회는 어거스틴의 말처럼 신자들

71) 박윤선, op. cit., p. 382.

72) A. A. 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김정흠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p. 422.

73) Inst(1559)., I. 1. 3.

74) Inst(1559), IV. 1. 3.

의 어머니이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는 공동체이다. 신자들은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통하여 한 몸으로 자라간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간의 연합과 교제는 어느 정도 외면적인 교회에 드러난다. 즉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신자들의 머리라는 사실을 참으로 확신한다면 그들은 형제애로 연합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을 수도 없다.”⁷⁵⁾ 즉 신자들은 교회와 연합하여 서로 봉사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 안에서 도움을 서로 주고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신자 개개인은 교회의 전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받는다. 따라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지체 상호간을 섬긴다. 그러나 또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존속하며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⁷⁶⁾. 그러므로 교회의 왕이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안에 공직자와 구분이 되는 교회의 직원들로서 운영되는 한 치리회를 세우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직책을 목회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서 선물을 교회에 분배하시며 그의 이 제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신다”⁷⁷⁾.

75) Inst(1559), IV. 1. 3.

76) 해롤드 나이트, op. cit, pp. 277~278.

77) Inst(1559), 61-62.

IV.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는 교회의 표지에 대한 이해

모든 선택받은 자들로만 이루어진 불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이 불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시적 교회가 불가시적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가시적 교회 안에는 유기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칼빈은 오직 하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오직 하나의 교회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교회의 통일성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시적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신자와 위선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상의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나온다. 또한 칼빈 당시의 문제도 교회가 도대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존하는 교회가 과연 참된 교회냐 하는 문제였다. 즉 칼빈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참된 교회의 형태는 항상 드러나 보이고 관찰될 수 있으며, 이 참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이었다.⁷⁸⁾

이에 대한 칼빈의 답변은 교회는 어떤 외형적 형태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 교회의 외형을 로마 교회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루터는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보낸 그의 편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올바르게 설교할 때 그리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할 때 교회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칼빈도 지상에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복음의 선포가 있고 복음선포에 경건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례를 경시하지 않는 곳에서는 교회의 형태가 보인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제도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⁷⁹⁾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은혜의 수단인 존재 여부에 따라서 교회가 구성되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다.⁸⁰⁾ 따라서 교회의 표지인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78) Inst(1536), p. 61.

79) Inst(1559), IV. 1. 9.

80) 프랑수와 방델, op. cit., p. 361.

집행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기준이 된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의 기초로 둔다. 교회를 세운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었다. 따라서 교회는 사도적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즉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요 하나님의 집”⁸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교회에 거짓된 교리가 침입해서 교리와 성례의 효험이 파괴될 때 교회는 죽게 된다. 즉 진정한 교회의 기둥과 기초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과 허위가 지배하는 곳에 교회가 있을 수 없다.⁸²⁾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에서는 교회의 표지를 하나님의 말씀, 성례, 권징 3가지로 본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 두 가지로 본다. 칼빈은 교회의 권징을 매우 중요시하였지만, 권징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는 보지 않았다. 니이젤에 의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권징은 불가시적 교회에 속한 참된 교회가 있느냐에 대한 표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였다.⁸³⁾ 즉 칼빈에게 있어서 권징은 중요하지만, 교회 본질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권징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며, 성화의 수단이다. 따라서 권징은 교회의 조직에 속하는 문제이지, 교회의 표지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다.⁸⁴⁾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3가지로 보았다. 첫째, 하나님이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배려 때문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축출하여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이런 추하고 썩는 지체에 의해서 부패된다면 그 머리에든 어느 정도의 치욕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신성한 이름에 수치를 끼우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가정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⁸⁵⁾ 이와 같이 권징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속시키는 것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이것이 권징의 두 번째 목적이다. 즉 권징의 두 번째 목적은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⁸⁶⁾ 권징의 3번째 목적은 출

81) Inst(1559), IV. 1. 23

82) Inst(1559), IV. 2. 1.

83) W.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p. 198.

84) 프랑수와 방델, op. cit., p. 365.

85) Inst(1559), IV. 12. 5.

86) Ibid.

교를 당하여 치욕을 당한 자들을 회개케 하는 데 있다. 즉 출교를 당하는 자들의 회개를 통하여 출교를 당한 사람들을 교정하는데 있다. 즉 권징의 3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의 한 부분이다. 즉 권징은 출교를 통해서 “장차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사람을 불러 돌아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⁸⁷⁾

1) 말씀

앞에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즉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쳤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 놓은 그 터위에 서 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을 받아서 전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충실한 파수꾼이다. 말씀의 참된 선포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로 하여금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는 위대한 방편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설교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역자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을 세상에서 자신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비밀한 뜻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다⁸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전통아래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홀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의 봉사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말로서 명백하게 선포하신다.⁸⁹⁾ 즉 교회의 표지를 생각할 때 강단이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봉사를 이용하셔서 신자들을 결속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사람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켜서 상호간의 사랑을 보다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목사로 임명하셔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셨다. 또한 제자가 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한 사역자의 입에서 공통된 교훈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교회를 한 끈으로 연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원과 영생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87) Inst(1559), IV. 12. 10.

88) Inst(1559). IV. 3. 1.

89) Inst(1559), IV. 3. 1.

게 말기시고 그들의 손을 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것이다⁹⁰⁾.

이와 같이 신자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말씀을 맡은 사람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릴 때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때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작용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손상 없이 유지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책을 목회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교회에 분배하신다. 이렇게 성도들은 갱신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며, 자라 가는 것이다.⁹¹⁾ 성경이 은혜의 방도라는 사실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구원의 측면이고, 둘째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는 면이다⁹²⁾. 칼빈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령과 의와 영생을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사용될 때 먼저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사람에게 역사 하였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⁹³⁾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구원의 측면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성화의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즉 말씀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 신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깨끗케 한다. 죄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⁹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교회의 봉사를 통하여 순수하게 선포되고, 영적 양식과 구원에 유익한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주셔서, 자신이 한 가족의 아버지임을 보이셨다⁹⁵⁾.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불어넣으시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 양식을 멸시하는 사람은 모두 굶주려 죽는 것은 당연하다.⁹⁶⁾ 그러나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왕국을 세우신다. 즉 목회자들에 의한 설교는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형태라

90) Inst(1559). IV. 3. 1.

91) Inst(1559), IV. 3. 2.

92) 김홍전, 『교회에 대하여 I』 (서울: 성약출판사, 2001), p. 53.

93) 김홍전, op. cit., 55.

94) Ibid., p. 79.

95) Ibid(1559). IV. 1. 10.

96) Inst(1559). IV. 1. 5.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설교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심는 수단이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는다면 교회에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또한 신자가 선포된 말씀을 참으로 듣는다면 그 결과는 말씀에 대한 순응을 낳는다. 참으로 듣는다면 교회의 권징에 순응하는 실천을 낳게 된다.⁹⁷⁾ 이와 같이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서 구원을 주며, 성화를 이루는 수단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하다. “설교는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확실히 성령께서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이해되고 믿어진다.”⁹⁸⁾ 즉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사람이 그 마음속에 증거 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받아들여 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내신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말씀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즉 모든 설교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외적인 말 자체로는 신자에게는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효하게 한다.

2) 성례

칼빈은 성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의 신실성을 신자가 확실히 믿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표징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광의적인 의미로 볼 때 성례는 자연물과 기적이 포함된다. 즉 노와와 하와에게 영생의 보증으로 주신 생명나무와 하나님께서 노와에게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표로 삼으신 무지개 같은 것들이 성례에 들어간다.⁹⁹⁾ 즉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자신의 기념의 뜻을 인치시기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연물은 성례의 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을 성례로서 사용하신다. 또한 자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례를 주셨

97) 오토베버, *op. cit.*, 58.

98) *Inst*(1559), IV. 2. 2.

99) *Inst*(1559). IV. 14. 17.

다. 칼빈은 성례의 정의를 두 가지로 정의했다.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며, 우리의 양심을 인치는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돕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선포와 관련이 된다. 즉 성례는 부차적이며, 보충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만 아니라면 그 자체라도 충분하다.¹⁰⁰⁾ 비록 복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례가 주어진 것이다. “성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선은 우리의 무지와 우둔함에, 다음에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비하신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 확고부동하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흔들리다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사용해서 신자들을 친히 자신께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즉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적인 요소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다.¹⁰¹⁾

이와 같이 성례전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케 하며 증강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칼빈에 의하면 성례는 성례에 선행하는 약속에 근거한다. 즉 성례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명확히 깨닫게 하며 그 약속을 확증함으로써,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준다.¹⁰²⁾ 이때 약속은 언약이며 성례는 언약의 표이다. 이 언약의 표에 의해서 약속이 확인되는 것이다. 성례가 언약의 표라는 것은 정부 문서나 공문서에 인장을 찍으므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복음의 선포가 필요하다. “참으로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족장들에게 어떤 표징을 주실 때에 그 표징과 교훈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 교훈이 없으면 우리의 감각 기관은 단순히 표징만을 볼뿐이어서 어리벙벙해질 것이다.”¹⁰³⁾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성례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100) 푸랑수와 방델, *op. cit.* 378.

101) *Inst(1559)*, IV. 14. 3.

102) *Inst(1559)*, IV. 14. 3.

103) *Inst(1559)*, IV. 14. 4.

가르치시며 지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례로 확인하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게 하시지 않는다면 성례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한다¹⁰⁴⁾. 즉 성례를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시며,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다. "성령이 없으면 먼 눈에 비치는 태양의 빛이나 막힌 귀에 울리는 음성과 같이 성례는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과 성례를 구별해서 역사 하는 힘은 전자에 있고, 후자에는 그 임무만을 남긴다. 이 임무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용이 없고 빈약한 것이 되지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며 힘을 나타내실 때에는 위대한 효력을 발휘한다¹⁰⁵⁾ 그렇다면 성례의 임무는 무엇인가? 성례의 임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고를 신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즉 성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인 것이다 "성례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담보물이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은혜도 주지 않고, 다만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한다. 성례가 모든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며 성례가 우리 사이에서 자리를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또한 칼빈은 성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칼빈 자신이 예정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자들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례의 효능은 선택에 밀접하게 의존되어 있다.¹⁰⁶⁾ 성례의 실체는 그리스도이다. 성례는 그리스도안에서만 견고성을 지닌다. 따라서 신자는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성례가 효과를 신자에게 효과를 나타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례의 표징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또한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표이다. 즉 주께서 성례를 제정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신자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고백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¹⁰⁷⁾.

104) Inst(1559). IV. 14. 8.

105) Inst(1559). IV. 14. 9.

106) 프랑수와 방델, op. cit., p. 384.

107) Inst(1559), IV. 14. 19.

① 세례

세례는 우리가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세례는 로마 카톨릭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즉 외적으로 받는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는 보지 않는다. 세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려는 데 있으며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성례에 공통적인 것이다¹⁰⁸). 세례의 첫 번째 목적인 믿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있다. 첫째 세례는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씻음을 나타낸다.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용서되고 소멸되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나 회상되거나 그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인을 친 문서와 같다.” 그러나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은 세례의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다. 세례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다는 점이 비슷하므로 피를 물로 대신한 것이다.

또한 칼빈은 세례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루터의 견해와 가깝다¹⁰⁹). “세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얻었다. 그의 순결은 영원히 풍성하고, 어떤 오점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물어버리며 깨끗하게 씻어버린다.¹¹⁰” 특히 세례의 표가 의미하는 영원한 죄사함은 죄에 신음하는 신자들을 일으켜 위로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세례가 가진 신앙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우리를 죽이는 것과 그 분 안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생활을 의미한다. 여기서 칼빈은 한 차원 높은 길을 제시하는데,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 분께 접붙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¹¹¹) 셋째 세례가 믿음에 부여하는 유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나누게 된다는 점이다¹¹²). 이와 같이 세례의 목적과 완성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108) Inst(1559), IV. 14. 2.

109) 프랑수와 방델, op. cit. 388.

110) Ibid(1559), IV. 15. 3.

111) 프랑수와 방델, op. cit., p. 389.

112) Ibid., p. 389.

이는 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칼빈에 의하면 세례의 교리는 칭의의 교리와 연결되어진다. 칼빈은 세례에 의해서 원죄가 없어지며 인류의 모든 부패가 없어지게 되고, 아담이 얻었을지도 모르는 의롭고 순결한 본성을 회복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반대한다. 칼빈에 의하면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사하여 주신다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 시킴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준다. 즉 세례의 교리는 칭의의 교리와 논리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¹¹³⁾. 그리고 세례는 과거 아담이 누렸던 순수한 상태를 회복시켜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부패는 신자 안에서도 계속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 세례가 의미하는 죄가 죽는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신자를 정복해서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기의 죄악에 눌러 고민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¹¹⁴⁾

세례 제정의 두 번째 목적인 신앙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다.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고백하며,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하나의 신앙을 지녔음을 증거 하게 된다. 그리고 세례로 인하여 신자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공포하며 선언한다.¹¹⁵⁾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이다¹¹⁶⁾. 칼빈은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재세례파에 맞서서 유아세례를 옹호한다. 따라서 칼빈은 신약의 세례와 할례의 유사성을 이끌어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제정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 사함을 약속했으며, 할례를 제정하셨다. 그리스도는 세례와 할례의 근거가 되신다. 따라서 할례와 세례는 외적인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약속을 전달한다.¹¹⁷⁾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113) 프랑수와 방델, *op. cit.*, pp. 390~391.

114) *Ibid*(1559), IV. 15. 11.

115) *Ibid*(1559). IV. 15. 13.

116) 프랑수와 방델, *op. cit.*, 392.

117) *Inst*(1559), IV. 16. 4.

되리라고 한 언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 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옛 언약으로부터 혜택을 입은 유대인의 자녀들이 현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보다 혜택을 입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하시고자 오셨다. 따라서 칼빈은 “만일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교제하며 만나는 외적 표징인 세례를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어찌하여 허용할 수 없는가?라고 하였다. 칼빈은 유아세례를 인정한 것이다. 유아세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의 후손을 돌보시고, 신자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세례라는 표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¹¹⁸⁾.

② 성찬

칼빈에 의하면 성찬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공급과 양육을 확증하는 영적 음식의 표시이다. 하나님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확증하시며, 이 떡을 우리의 영혼이 먹음으로 진정하고 복된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있다.¹¹⁹⁾ 성찬의 표징은 떡과 포도주이다. 이 표징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받는 보이지 않는 양식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신자들을 중생 시키고 그의 교회에 접붙이신다. 이렇게 자신의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식을 주신다. 즉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주의 몸과 피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임을 신자들이 깨달으며,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인도된다. 떡이 신체에 영양을 주어 생명을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신자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이다. 마찬가지로 포도주 역시 포도주가 주는 영적 유익을 생각 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비슷한 영적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¹²⁰⁾. 물론 이때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이시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갈 때까지 영적 음식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운을 얻게 하시는데 있다. 이렇

118) 프랑수와 방델, *op. cit.*, pp. 398~399.

119) *Ibid*(1559). IV. 17. 1

120) *Inst*(1559). IV. 17. 3.

게 영적 음식을 성찬을 통하여 제시하는 이유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이 영적인 신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표징으로 사용하셔서 그 신비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즉 떡과 포도주의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신비의 복의 목적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의 몸이 이미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지금 먹을 수 있으며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 독특한 희생의 역사를 우리 안에 느끼고 또 우리의 항구적인 음료가 되기 위해서 주의 피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다.”¹²¹⁾ 또한 신자들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 그리스도가 상속하신 영생이 자신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천국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들에게서도 천국을 분리할 수 없다는 확신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루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 받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것이다¹²²⁾.

그러나 성찬의 중요한 기능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과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례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자들을 강건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으며 또한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불가능한 신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성례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비틀거리는 믿음을 돕는 것이다.¹²³⁾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셨다. 그리고 성찬에서는 이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산 체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121) Inst(1559). IV. 17. 1.

122) Ibid(1559). IV. 17. 2.

123) 프랑수와 방델, op. cit., p. 411.

올바르게 먹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뜻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다. 몸에 영양을 주려면 떡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에게 깊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⁴). 즉 “성찬의 신비에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고 나는 말한다.¹²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연합해야 한다. 따라서 칼빈은 “마치 떡을 보는 것만으로는 몸에 유익이 없고 먹었을 때 유익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교제를 나누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생의 생명력을 얻게 된다¹²⁶”고 하였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생명 되신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기 위해서 취한 자신의 육신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신자들이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가 되신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¹²⁷).

참으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서 양식을 얻는 것, 즉 그리스도안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성령이 실현시키시는 것이다. 즉 성령께서는 성찬에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성령이 효과적으로 실현하시는 것이다¹²⁸). 칼빈은 성찬의 두드러진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서 영적 진리로부터 가시적 표징들을 구별한다. “나는 거룩한 성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물질적인 표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의 미약한 능력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영적 진상으로서 이것은 동시에 그 상징들에 의해서 표현되며 전시된다. 이 진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의미와 의미가 의존하는 본체와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 힘 또는 효과의 세 가지이다.”¹²⁹) 칼

124) Inst(1559). IV. 17. 5.

125) Inst(1559), IV. 17. 11.

126) Inst(1559), IV. 4. 17. 5.

127) Inst(1559). IV. 17. 8.

128) Inst(1559). IV. 17. 10.

빈에 의하면 영적인 진리는 표징들에 의해서 상징될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즉 성례의 영적 진리가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제공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표징들 안에 영적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칼빈이 의미한 성례의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빈이 말한 성례의 표상, 본질, 효능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¹³⁰). 칼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미는 약속에 포함되었으며 약속은 이를테면 표징에 내포되어 있다. 본체 또는 실체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효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속과 의와 성화와 영생과 그 밖의 모든 은혜들이다.” 그렇다면 성찬의 영적 진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찬의 신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에 의해 제시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됨으로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며,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본체에 참여하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한다¹³¹). 즉 성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칼빈은 성찬 자체가 객관적으로 주어지면 서도 이 성찬의 효과는 신자들에만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경건한자는 성례에 참여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찬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자의 성찬의 참여를 반대한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조건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신앙과 사랑이다¹³²).

129) Inst(1559). IV. 17. 10.

130) 프랑수와 방델, *op. cit.*, p.409.

131) Inst(1559). IV. 17. 11.

132) Inst(1559). IV. 17. 42.

V. 결론.

개혁신학에 대한 칼빈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있는 교회론을 읽어보면 매우 실천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전개해 나가면서도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모습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 만큼 칼빈의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순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칼빈의 교회론은 예정론에 근거한다. 교회가 예정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음을 생각할 수가 있다. 또한 칼빈의 교회론은 성도를 양육하는 교회의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인 교회의 품으로 성도들을 모으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라도록 양육하신다. 즉 어머니라는 교회의 이름은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 이때 신자들의 연합의 기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서로간에 형제애로 연합된다. 그리고 신자 개개인들은 교회 안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지체 상호간을 섬긴다. 또 칼빈의 교회론은 본질적인 모습과 교회의 표지에 의해서 크게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할 때, 즉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 이곳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표징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까할 때 교회의 표지를 등장시켰다. 즉 교회의 표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표지에 따라서 즉 성경이 제시하는 선까지 교회 조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칼빈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칼빈의 교회론에 비추어서, 즉 개혁주의 교회론에 비추어서 현대의 교회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교회론에 비추어서 현대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의 본질적인 면과 교회의 표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된지 100여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의 교회는 크게 성장하였다. 물론 지금은 한국의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교회가 하강곡선을 걷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칼빈의 교회론에 비추어서 현대교회를 평가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첫째, 지금의 한국 교회는 대

부분이 복음주의 교회이며 복음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의 복음주의는 특히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점이다.

1) 교회의 본질적인 면-칼빈은 예정론에 근거하여 교회를 판단한다. 즉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라도 교회에서 오용될 수 없으며,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점이다. 칼빈은 교회는 택자들의 전체수로 정의하였다. 현대교회의 특징은 본질적인 차원보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보통 전통적인 교회와 자신들을 대조한다. 그 예로 메타교회¹³³⁾란 것이 있다. 메타교회는 목회, 행정, 헌금, 전도, 예배 등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메타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미래를 향하여 계속 계획해 나간다. 성도에게 초점을 맞춘다. 불변하시는 주님을 변해가는 사역의 내용 속에서 계속 제시한다. 새로운 성도가 오면 친절하게 맞이한다.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잘되고 있는가에 항상 초점을 맞춘다. 전 교인이 다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추구한다. 축제 분위기의 예배를 추구한다. 교회 예산을 전도와 선교에 추구한다. 예배 시에는 일반성도 전체가 다 같이 잘 부를 수 있는 쉽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진행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간다.”¹³⁴⁾ 이와 같이 현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회의 시스템과 설비에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도, 신자 개개인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어떤 차원에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문해 보아야 한다. 즉 신자 개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서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 하나는 교회의 본질에서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기능이다. 앞의 메타교회의 특징에서 보았지만 현재의 교회들도 성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초점은 사실상 성도 자신보다도 신자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데 더 초점이 있다. 그렇다면 성도의 양육이라는 차원에서, 즉 어머니처럼 낳고 기

133) 메타교회란 모노(Mono)에서 멀티(Multi)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찾는 전략을 가진 교회가 메타교회이다.

134) 김정옥,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1988), p. 150.

르는 그런 차원의 사역이 약하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로 자라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점은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외면보다도 내면에도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을 의미한다. 또 현대교회는 성도의 교제의 차원을 많은 신경을 쓴다. 그러나 그 성도의 교제가 참된 성도의 교제인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는 가운데 현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교회성장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회 성장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극대화된 숫자적 성장을 추구한다. 이것은 대형교회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결국 대형교회운동은 교회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경영기법이나, 마케팅 원리를 교회에 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숫자가 성장하는 교회는 특징은 첫째, 교단의 호징을 떼어버리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교단이름 대신 공동체 (communit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두 번째 특징은 설교자와 목회자가 경영적 기술과 인간관계가 뛰어나서 대중적으로 뛰어난 매력을 지닌다. 셋 번째 특징은 그 교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카톨릭,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등 배경이 다양하다. 쉬게 이야기하면 교회성장운동은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을 생각한 나머지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중요시하여 신자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신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으며, 믿는 자 서로간에 참다운 위로와 교제가 있어야 한다. 즉 외적인 것보다도 먼저 교회의 본질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교회의 표지-칼빈에 의하면 지상의 교회는 표지가 중요하다. 즉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며, 성례가 집행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 조직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교회가 기능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교회의 표지부분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약화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변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대적인 예배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리보다도 사람들의 취향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현대적인 예배는 간편한 예배를 추구하며, 예배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을 추구하고, 보여주는 것을 추구한다. 특히 전도의 목적으로 열린 예배를 도입

하기도한다. 그러나 과연 불신자들 전도목적을 위한 목적으로 열린예배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열린예배를 옹호하는 자들은 교회의 전통을 완전히 배제한다. 그리고 열린예배에는 드라마 같은 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제시하는 예배의 원리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또한 앞의 메타교회의 특징에서 보았듯이 교회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찾는다면, 잘못하면 칼빈이 이해하는 교회의 표지에 따른 교회 조직도 무너지게 되고 만다. 그리고 목회자는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하는 직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교회의 목회자중에 지나치게 카리스마적인 목회자가 있다. 너무 카리스마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 보다 목회자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또한 교회의 성례에서 세례를 통하여 죄 용서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한다는 사실과 성찬을 통하여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주님에게 동참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 혜택들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도록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나 성례가 미신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칼빈의 교회론의 모습에 비추어본 현대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밝은 편만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시 교회이다. 또 수많은 사역자들 모두가 자신들을 위하여 사역하지는 않을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대교회의 패턴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칼빈이 제시하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교회의 표지에 따른 교회의 사역이 잘 제시되어서 교회의 표지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교회론의 바른 모습을 찾아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서적

- 김영재. 『기독교교회사』,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김익원. 『사상속의 사상』, 성광문화사. 1990.
김홍만. 『개혁신앙으로돌아가라』, 도서출판 옛적길. 2004.
김홍전. 『교회에 대하여 I』, 성약출판사. 2001.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영음사. 2003.
이장식. 『기독교사상사제Ⅱ권』, 대한기독교서회. 1983.
오덕교. 『장로교회사』,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유선호.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승문출판사. 1988.

번역서적

- A. A. 하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해설』, 김정흠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Eric G. Jay. 『교회론의 역사』, 주재용 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Justo L. Gonzalez. 『기독교 사상사Ⅱ』, 이형기 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8.
노르만 가이슬러·랄프 맥킨지. 『로마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김영규 역. 도서출판 그리심. 2003.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下』, 이상원 외 공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2000.
루터. 『루터선집9』, 지원용 역. 컨콜디아사. 1987.
루터. 『루터선집10』, 지원용 역. 컨콜디아사. 1983.
오토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초판』, 양낙홍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2002.
_____. 『기독교 강요 최종판』, 로고스 번역위원회. 1987.
_____. 『Commentary』,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성서교재 간행.
_____. 『존·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 공역. 생명의 말씀사. 1991.
카터 린드버그. 『마틴루터』, 컨콜디아사. 1990.
프랑수와 방델. 『칼뱅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2002. 파울 알트하우스. 『루터의 신학』 이형기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역.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3.

헤럴드 나이트. 『칼빈의 신학사상』, 기독교 문화협회. 1986.

정기간행물

김길성. “교회의 일치와 순결-개혁과 교회론을 위한 시도”, 『신학지남』, 제243호. 1995호 여름호.

이안 머레이. “복음이 교회를 만들도록 해야합니다”,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2000.

서철원. “개혁과 교회론”, 『신학지남』, 제248호. 1996년 가을호.